

# 에도시대 한 여성 지식인의 유교인식

-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의 『独考』를 중심으로-

林 泰弘\*

(e-mail : kcjone@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유교에 대한 비판        |
| 2. 『独考』의 사회문화적 배경   | 3.1 성인의 도           |
| 2.1 마쿠즈의 아버지        | 3.2 이기론             |
| 2.2 마쿠즈 시대의 사람들     | 3.3 인의예지            |
| 2.3 다키자와 바킨과 『독고』   | 3.4 공자 성당           |
| 2.4 『독고』집필의 개인적인 배경 | 4. 마쿠즈의 유교적 사유방식    |
|                     | 4.1 완전부정이 아닌 대안의 제시 |
|                     | 4.2 유교 도덕적인 삶의 추구   |
|                     | 5. 맺음말              |
- 

## 1. 머리말

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 1763-1825)는 에도시대의 수필가, 철학자, 시인, 여류사상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막부 말기에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특히 여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던 시기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비평을 함으로써 ‘사회비판자’, ‘고독한 도전자’,<sup>1)</sup> ‘여성해방의 선구자’<sup>2)</sup> 등의 평을 듣기도 하였다.

마쿠즈의 저작으로는 『昔ばなし(옛날이야기)』(1811-1812), 『奥州ばなし(동북지방 이

---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동아시아 근대사상 전공

1) 門玲子, 「只野真葛その文学と思想—孤独な挑戦者」, 『江戸期おんな考』7, 桂文庫, 1996 참조.

2) 宮沢民子, 「幕藩制解体期における一女性の社会批判—只野真葛の「独考」を中心に」, 『歴史学研究』423, 1975.8, p.17.

야기』, 『独考(독고)』(1817), 『磯づたい(물가를 따라서)』(1818), 『キリシタン考(크리스찬 고찰)』 등이 있다.<sup>3)</sup> 여기서는 이 가운데 『독고(独考, ひとりかんがえ, 혼자 생각)』<sup>4)</sup>를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난 유교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다노 마쿠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아직 연구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주로 문학연구자 또는 여성학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약 1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비교적 빠른 시기의 연구로는 미야자와 타미코(宮沢民子)의 「幕藩制解体期における一女性の社会批判—只野真葛の「独考」を中心に」(1975년)가 있다.<sup>5)</sup> 이 논문은 마쿠즈의 사상형성에 관해서, 자연관과 인간관, 사회사상 그리고 여성사상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성해방 운동, 계급투쟁 및 사회구조적인 모순 문제의 차원에서 마쿠즈 사상을 분석한 것이다.

1980년대와 90년대 연구는 주로 스즈키 요네코(鈴木よね子)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①「只野真葛「奥州ばなし」—異界発見の一過程」, ②「反真葛論—「独考」一件をめぐる」, ③「「独考」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④「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등의 논문이 그것이다.<sup>6)</sup>

이중에서 논문②는 『독고』에 보이는 마쿠즈 자신의 자전적인 기록을 100% 그대로, 사실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독고』는 소설가 다카자와 바킨이나 사회 대중을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으로, 그녀의 사적인 기록인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면, 마쿠즈에게는 ‘세상에 알려지고 싶다’는 욕망이 의외로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현실과 분열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

3) 마쿠즈의 문장은 鈴木よね子校訂의 『只野真葛集』(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1994)에 거의 다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원문 인용은 주로 이 책을 이용한다. 참고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마쿠즈의 일부 문장은 다음과 같이 단편적으로 번역되었거나 출판되어 있다. 須永朝彦訳, 「影の病: 「奥州波奈志」より」, 東雅夫編, 『書物の王国』, 国書刊行会, 1999; 中山栄子校注, 『むかしばなし: 天明前後の江戸の思い出』, 平凡社, 東洋文庫433, 1984; 上田秋成, 「磯つたひ」, 婦人文庫刊行会, 『婦人文庫 第4回 文集』 1914년. 마쿠즈 관련 서간 자료도 門玲子 등의 『只野真葛あての妹萩尼からの書簡(翻刻)』(『江戸期おんな考』12, 2001); 門玲子の 「只野真葛の夫伊賀あて書簡」(『江戸期おんな考』11, 2000)에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4) 『독고』는 Janet R. Goodwin, Bettina Gramlich-Oka, Elizabeth A. Leicester, Yuki Terazawa, Anne Walthall 등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라는 타이틀로 *Monumenta Nipponica* (56:1, 2001), 56:2, 2001)에 실었는데, 번역에 이 자료도 참고하였다.

5) 이 논문은 関民子の 『江戸後期の女性たち』(1980年, 亜紀書房)에 「幕藩制社会の総体的批判者の登場—只野真葛とその思想」라는 글로 재수록된 것으로 추측됨.

6) ①鈴木よね子, 「只野真葛「奥州ばなし」—異界発見の一過程」, 『都大論究』23, 1986.3; ②鈴木よね子, 「反真葛論—「独考」1件をめぐる」, 『日本文学』36-1, 1987.1; ③鈴木よね子, 「「独考」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都大論究』通号24, 1987.3; ④鈴木よね子, 「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日本文学』44-10, 1995.10.

다.7)

논문③은 『독고』가 경세실학(經世實學)과 국학의 영향을 받아 집필되었다는 점을 검토한 논문이다. 경세실학은 가이호 세이료(海保靑陵, 1734-1800) 사상과 비교하여, 세이료가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인식의 수단을 ‘내가 나를 본다(我觀我)’, ‘나는 사물이다(我爲物)’라는 명제를 세우고 ‘자기를 객관시 할 것’과 ‘자기 중심주의로 부터 해방될 것’ 등 두 가지 자기수양 방법을 제시한 것은 마쿠즈가 ‘천지 간의 박자’를 발견한 계기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현상을 대상화하는 사유방식’으로,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늘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며, 둘째는 ‘이상함’, ‘혼자 생각함’ 등을 기본적인 사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학의 영향은, 1) 남자는 남는 부분이 있으며 여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고사기』의 문구를 이용한 ‘육체의 사상’을 거론한 점, 2) 『독고』의 ‘國’은 ‘번(藩)’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황국(皇國)’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 3)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1697-1769)의 『국의고(國意考)』로부터 세계관, 인간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든다. 예를 들면 마부치가 제시한 사상에는 어떤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리듬이 ‘사시(四時)’나 ‘천지(天地)’와 함께 존재하는데, 『독고』의 ‘천지간(天地間) 박자’도 그렇다는 것이다.

④번 논문에서 스즈키는 마쿠즈의 문장을 ‘자신의 이야기’로 정의하고, 문학작품으로서 에도시대에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sup>8)</sup> 아울러 다음과 같이 그러한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마쿠즈의 문장은 “쓰는 행위로부터 생겨났지만, 텍스트로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단독이 아니라 많은 텍스트의 집합체 가운데 존재하여 재생산·변형·재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생산·변형·재구성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작업 가운데, 소위 텍스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말하는 뉴앙스도 조금씩 다르다.”<sup>9)</sup>

스즈키 요네코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끝에 『只野真葛集』(1994, 国書刊行會)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마쿠즈 연구는 비교적 치밀하고, 마쿠즈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뛰어난 특징이 있다.

스즈키 요네코 이후로는 本田和子の「父になり得ぬ娘の嘆き」,<sup>10)</sup> 門玲子の「只野真葛その文学と思想—孤獨な挑戦者」(1996), 高橋恵의「只野真葛の思想」,<sup>11)</sup> 別所興一の「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sup>12)</sup> Bettina Gramlich-Oka, 2004.6,

7) 鈴木よね子, 「反真葛論—「独考」1件をめぐる」, p.26.

8) 鈴木よね子, 「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p.43 참조.

9) 鈴木よね子, 「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p.51.

10) 本田和子, 「父になり得ぬ娘の嘆き」, 『江戸の娘がたり』, 朝日新聞社, 1992.

11) 高橋恵, 「只野真葛の思想」, 『年報日本思想史』創刊号, 2002.3.

12) 別所興一,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自然と実学』2 (特集 貨幣支配文明の克服と東アジアの实心実学—第六回東アジア実学国際シンポジウム), 2002.3.

“Kirishitan Kô by Tadano Makuzu: a late Tokugawa woman’s warnings”,<sup>13)</sup> 前田勉의 「只野真葛の思想—国学と蘭学との交錯」<sup>14)</sup> 등이 발표되었다.<sup>15)</sup>

이중 다카하시 메구미(高橋恵)의 연구는 마쿠즈가 『독고』를 쓰게 된 간절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는 마쿠즈가 1)세상에 출세하고 싶다는 욕구 2) 집안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다카하시는 “효심이 없었다면 마쿠즈의 생각, 마쿠즈의 사상은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상은 당시의 사상인 유교를 충실히 실천한 결과,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다. 그 때문에 마쿠즈의 사상은 당시 체제를 비판하는 유교비판이었다. 따라서 마쿠즈의 『독고』는 치열한 효심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유교를 비판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이다”<sup>16)</sup>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마쿠즈의 유교 비판 이면에는 유교적인 ‘효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벳쇼 코이치(別所興一)의 논문은 2002년에 동아시아 실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으로 실학의 측면에서 마쿠즈의 사상 배경, 인간관, 화폐경제 인식과 유교 비판 등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마쿠즈는 유교를 단순히 중국인이 만든 하나의 법(法)을 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반인에게는 장식도구와 같은 것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다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보았다고 했다. 또 마쿠즈는 유교와 불교사상을 상대화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로,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마음을 자유스럽게 하여 하늘 위에서 인간 사물을 바라보는 경지였다고 지적하였다.<sup>17)</sup>

이 글은 그동안의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쿠즈의 유교인식을 분석,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유교에 대한 비판을 완전한 부정이 아닌 대안제시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13) Bettina Gramlich-Oka, 2004.6, “Kirishitan Kô by Tadano Makuzu: a late Tokugawa woman’s warnings”, *Bulletin of Portuguese-Japanese Studies*, Vol8, Universidade Nova de Lisboa.

14) 前田勉, 「只野真葛の思想—国学と蘭学との交錯」, 『日本文化論叢』(12), 2004.3.

15) 이외에도 개설적인 내용의 논저를 소개하자면, Bettina Gramlich-Oka, 2001, “Tadano Makuzu and her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 門玲子, 「江戸時代の女流思想家 只野真葛」, 藤原書店, 『環』6, 2001.7; 今井伸子, 「只野真葛考」, 『鶴見日本文学』7, 2003.3 등이 있다. 1930년대에 출판된 마쿠즈의 전기 『只野真葛』(中山栄子著, 丸善株式会社, 1936)도 마쿠즈 연구에 중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자책으로 공개하고 있는 이 자료는 마쿠즈의 일생, 저서, 연표, 가족 관계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마쿠즈와 관련한 소설도 『葛の葉抄-あや子、江戸を生きる-』(永井路子著, P H P 文庫)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있다.

16) 高橋恵, 「只野真葛の思想」, p.46.

17) 別所興一,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발표원고 중 p.5 참조.

## 2. 『独考』의 사회문화적 배경

### 2.1 마쿠즈의 아버지

다다노 마쿠즈는 센다이번(仙台藩)의 무사집안 출신으로 의사인 구도 헤이스케(工藤 兵助, 1734-1800)의 딸이다. 헤이스케는 원래 기슈(紀州)번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센다이번으로 양자를 가, 구도 집안의 대를 이었다.<sup>18)</sup>

구도 헤이스케는 딸인 마쿠즈가 한문 공부를 못하게 하였다. 『독고』의 첫머리에 마쿠즈는 이렇게 적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내가 한문 읽는 것을 금지해 나는 그것을 읽어도 뜻을 잘 알지 못한다. 더구나 불교 문장은 한 줄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도 성인(聖人)도 모두 세상의 마음 쓸 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만을 마음의 길잡이로 삼아, 최근 몇 년간 한가한 틈을 타 깊이 생각을 거듭하였다.<sup>19)</sup>

아버지의 반대로 한문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불교(부처)와 유교(聖人, 성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양은 갖추었던 것 같다. 인용문을 보면 나름대로 부처와 성인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남동생으로부터 유교의 기본적인 경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두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한평생을 다하는 것이다. 마쿠즈처럼 이상하게 마음을 두는 곳도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 서 있을 수가 없다. 문장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중국의 문자를 모르니 읽을 수도 없다. 모토스케(남동생)가 사서(四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었을 뿐이라, 마음에 남아 있는 것도 없다.<sup>20)</sup>

동생 모토스케로부터 ‘사서’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인 있으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문을 모르니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들어도 깊이 있는 이해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쿠즈는 『독고』를 집필하면서 자신의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을 절감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18) 前田勉, 『赤蝦夷風説考』, 『日本思想史辞典』, (べり)かん社, 2001), p.3

19) 只野真葛, 『独考』(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p.261.

20) 只野真葛, 『独考』, p.290.

간신히 생각해낸 것을 모두 풀어내고자 하였다. 과연 가슴이 후련하지 않는 기분으로 너무도 이상한 혼자만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속된 말로 표현한 곳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빨라 따라가기 힘든 부분은 모두 구어체를 섞어 썼다.<sup>21)</sup>

생각을 바로 글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각나는 대로 속된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2.2 마쿠즈 시대의 사람들

마쿠즈 아버지는 마쿠즈가 한문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자신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다. 마쿠즈는 『독고』에서 자기 아버지를 난학자(蘭學者)<sup>22)</sup>로 소개하였는데, 구도 헤이스케는 러시아사람들에 대한 풍문을 정리하여 『붉은 오랑캐에 대한 풍문 고찰(赤蝦夷風說考, 아카에조 후세쓰코)』라는 책을 저술한 바 있다.

이 책은 1783년에 완성된 것으로 러시아 사정과 러시아의 남하에 따른 대응책을 정리,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문자나 토산물 등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 헤이스케는 이 책을 통해서, 러시아는 일본을 침략하려는 음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일본과 교역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홋카이도에서 벌어진 노략질을 단속하기 위해서 광분하기 보다는 교역을 공인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교역 자금으로 홋카이도의 금은 광산을 개발해, 채굴하도록 주장하였다.<sup>23)</sup>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견해였는데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은 그의 딸 마쿠즈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독고』에는 그러한 영향을 추측할 수 있는 문장들이 여기 저기에 보인다. 예를 들면, ‘중권(中卷)’ 부분에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당시의 경제사회적인 동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가 보인다.

구도 헤이스케는 특히 당시 나카가와 준안(中川淳庵), 카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 오오쓰기 겐타쿠(大槻玄沢)<sup>24)</sup>등 난학자들과도 깊은 교류가 있었다. 앞서 소개한 그의 책도 사실은 이들 난학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그 자신은 네델란드어를 읽지 못했다.<sup>25)</sup>

다다노 마쿠즈가 살았던 시기는 명치유신으로부터 약 40여년전으로, 일본 최초로 전국을 일주하고 측량하여 지도를 만든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 1745-1817), 우키요에(浮世絵)로 유명한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 소설가 다키자와 바킨

21) 只野真葛, 『独考』, p.261.

22) 只野真葛, 『独考』卷の中, 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p.282.

23) 前田勉, 『赤蝦夷風說考』, p.3.

24) 오오쓰기 겐타쿠는 1774년에 『解体新書』를 번역한 스기타 겐과쿠(杉田玄白, 1733-1817)로부터 난학을 배워, 『重訂解体新書』(1798)를 간행한 바 있다.

25) 前田勉, 『赤蝦夷風說考』, p.3.

(滝沢馬琴, 1767-1849)등이 활약하던 시기였다.

### 2.3 다키자와 바킨과 『독고』

바킨은 특히 마쿠즈가 나이 55세 되던 해에 집필한 『독고』를 직접 읽고 그것을 비판하여 『독고론(独考論)』, 『마쿠즈라는 여인(真葛のおうな)』등을 쓰기도 하였다. 원래는 마쿠즈가 자신의 문장을 출판하기 위해서, 당시 이미 유명하게 된 소설가 바킨에게 『독고』를 읽고 교정을 부탁하였다. 당시 막부는 아무나 함부로 서적을 출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엄격한 막부의 출판 통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sup>26)</sup>

마쿠즈는 바킨에게 『독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다.

만약 이 글을 싫어하고 비난할 정도라면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비스러운 생각이 가슴에 넘치고 슬픔의 눈물이 소매를 적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 자기 혼자만의 몸만을 풍족하게 하려고, 외국에 대해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나라의 낭비도 개의치 않습니다. (중략)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쿠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더라도 마음이 아프거나 서운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어, 삼가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sup>27)</sup>

바킨은 처음에는 마쿠즈의 의뢰에 호감을 가지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마쿠즈가 『독고』를 세상에 보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걱정하였던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바킨에게서 일어났다.

바킨은 어느 날 갑자기 『독고』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고 세상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출판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비판이 글로 정리된 것이 그의 『독고론』이었다. 결국 마쿠즈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독고』는 출판되지 못하고 마쿠즈는 깊은 충격을 받고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독고』가 세상에 일찍이 소개되지 못한 이유다.

바킨은 나중에 마쿠즈의 소식이 궁금하여 주위에 알아보았다가 마쿠즈가 이미 세상을 등진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마쿠즈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쿠즈라는 여인』이라는 글을 써서 마쿠즈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 2.4 『독고』 집필의 개인적인 배경

『독고』의 첫머리에 마쿠즈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소개하였다.

이 글은 모두, 수줍어하거나 암전한 내용보다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고 과격

26) 中山栄子著, 『只野真葛』, 丸善株式会社, 1936, p.85 참조.

27) 只野真葛, 『独考』, p.260.

한 내용이 많습시다. 그 이유는 이렇습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낮추고 지나친 말은 삼갑시다. 그러나 마쿠즈처럼, 서른다섯 살 때 한평생 살았다고 깨끗하게 단념하고, 이 외진 땅으로 내려오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고 굳게 각오하였다면 다릅시다.<sup>28)</sup>

자신의 글이 너무 과격한데 그 이유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스러운 삶까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독고』는 바로 마쿠즈 자신의 불행한 삶, 즉 가족의 불행과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승화되어 일본 사회 내부의 혼란을 자신의 일로 걱정하고 정리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마쿠즈는 앞의 인용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독고』를 세상에 내보이고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이제 벌써 세상을 등진 것도 한참 되고, 또 지난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이미 세상을 등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을 사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시다.”<sup>29)</sup>

한때는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살을 꿈꾸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그러한 고통 끝에 우연히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년간 고심하던 생각을 단숨에 써내려간 것이 바로 『독고』라고 하는 작품이었다.<sup>30)</sup>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갖고 차례차례 낳고 키우면서 나이를 먹게 되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홀로남아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친구도 없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만물이 형성되는 모습이나 사람이 평생 동안 변해가는 모습을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거나 하였다.<sup>31)</sup>

『독고』라는 글은 한문을 읽지 못하는 마쿠즈가 자기 나름대로 인간과 국가, 사회 나아가 세계에 대해서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정리해낸 것이다.<sup>32)</sup>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구축해낼 수 있었다. 아울러 1800년대 초기 일본의 일반 사람들에게 유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하는 점도 이 『독고』를 통해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28) 只野真葛, 『独考』, p.260.

29) 只野真葛, 『独考』, p.260.

30) 別所興一,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pp.1-2 참조.

31) 只野真葛, 『独考』, p.290.

32) 마쿠즈는 “어렸을 때부터 『이세 이야기(伊勢物語)』를 읽고 그것을 배워서 썼다”고 언급하여 일본 고전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只野真葛, 『独考』, pp.290-291.)

### 3. 유교에 대한 비판

마쿠즈가 유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점은 그동안 여러 연구자가 지적해왔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대목을 중심으로 『독고』의 유교비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 3.1 성인의 도

마쿠즈는 유교의 도(道), 즉 성인의 도가 마치 장식도구나 공식 행사 때 쓰는 마차와도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쓸모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인의 도(道)는 옛날부터 공적인 일에만 사용된다면 사실 도(道)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사람이 만들어낸 ‘도’로 중국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 예를 들면 넓은 도로에서 수레를 이끄는 것과 같다. 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수레에 신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당장 급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그 대강을 한차례 분명히 해두고, 문밖에 준비해두어 집안일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구가 다루기 힘들어 다치는 일도 있다. 좋은 점 나쁜 점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34)</sup>

유교의 가르침이 공적인 일에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일상생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어서 마쿠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은 대략, 사람의 마음은 잘 단속한다면 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금(禁)줄을 쳐서 스스로를 인도하는 수단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별 볼일 없는 나쁜 놈들이 멋대로 할 경우, 마음을 굳게 단속한 쪽이 뒤처지게 되고 언제나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성인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간직하고 즐거이 생각되는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마음을 겹겹이 둘러싸서 단속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분에는 더 둔해지고, 천지(天地)의 박자(拍子)에도 거스르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두렵도다. 두렵도다.<sup>35)</sup>

여기서 ‘천지의 박자’란 마쿠즈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여 제시하는 천지간에 작용하는 리듬과 같은 어떤 원리를 말한다. 유학의 가르침을 정성껏 따르게 되면 오히려 나쁜

33) 특히 別所興一의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제4장 ‘마쿠즈의 유교비판’을 참조.

34) 只野真葛, 『独考』, p.268.

35) 只野真葛, 『独考』, p.268.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거나 그들 보다 뒤처지게 되고 손해를 입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예로 마쿠즈는 상인 집안 출신의 첩이 무사 집안에 들어와 해를 끼치게 되는 사례를 들었다.

유교적인 도덕이 현실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나쁜 경우로, 그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첩 때문에 집안이 불행하게 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로서는 매우 이상하다. 천한 여자 때문에 귀한 분이 마음을 괴로워하는 것은 왜일까? 정말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sup>36)</sup>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귀한 분’은 마음을 괴로워하게 되고 천한 여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금전적인 손해 사례를 이렇게 들기도 하였다.

옛날에는 나라를 다두고, 서로 싸워서 토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난세(亂世)였다. 지금은 금은재화를 빼앗는 마음의 난세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물건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가난한 하층민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 그러한 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다. 높은 사람이나 또 덕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 수 없다. 또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인(仁)의 시작(端)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금이나 쌀과 같은 보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맡겨서 마치 줍쌀을 주듯이 그것들을 나누어 줘버린다. 참으로 애처롭다.<sup>37)</sup>

하층민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에 잘 적응을 하는데, 높은 사람이나 덕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잘하여 금이나 쌀과 같은 보물들을 함부로 허비한다고 하였다. 유학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 3.2 이기론

마쿠즈는 유학, 특히 주자학의 이기론(理氣論)을 언급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 자신이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학의 이기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을 가능성도 없다. 물론 그의 남동생을 통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한 그는 “천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낮과 밤의 수(數)와 천지의 박자를 기본으로 하여, 무슨 일이나 이것에 합치되게 하고, 합치되지 않는 일에는 관련되지 않게 한다면, 일생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도 유교의 도도 인위적으로 만든 법도이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은 진리는 순환하는 해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의 수

36) 只野真葛, 『独考』, p.266.

37) 只野真葛, 『独考』, pp.270-271.

와 천지간에 떠도는 박자다”<sup>38)</sup>라고 하여 주자학의 이기론에 비견할 만한 ‘밤과 낮의 수’, ‘천지간의 박자’를 제시하였다.

천지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낮과 밤의 수(數)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다. 변창하게 되고, 쇠퇴해가는 것도 이 수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sup>39)</sup>

마쿠즈는 밤과 낮의 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수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창하고 쇠퇴해간다고 하였다. 북송 유학자 소강절(邵雍, 1011-1077)이 천하 사물의 근본은 수(數)라고 하여 그 수에 의해서 상(象)이 생기고 상에 의해서 천하 사물의 형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sup>40)</sup> 이 소강절의 수와 마쿠즈가 말하는 밤 낮의 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수가 유교의 리(理)와 기(氣)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마쿠즈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존경하는 유학자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마자와 반잔(熊沢蕃山)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두 유학자는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그 학문의 실력을 칭찬하는 것뿐이다. 지금에 이르러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대군을 재촉해서 이끌고 조선국을 쳐서 점령하고는 무슨 이유도 없이 내던져버린 것과 같다. 그 한사람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 그 때문에 자기 한 몸을 고생시킨 것만으로 참으로 힘들지 않았을까?<sup>41)</sup>

구마자와 반잔(1619-1691)은 에도시대, 17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으로 주자학 보다 는 양명학에 더 흥미를 가졌다. 아라이 하쿠세키(1657-1725)는 마쿠즈보다 100년 정도 앞선 사람으로 정통 주자학자였다. 이들을 ‘유학자’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이룬 학문적인 업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마쿠즈가 이렇게 자기보다 앞선 유명 유학자들은 비판한 것은 바로, 뚜렷한 업적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쿠즈가 언급한 밤과 낮의 수라든지, 천지간의 박자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낮과 밤의 수를 무시하고 천지의 박자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배움을 갖고 있더라도 한세대를 끝으로 부서져 흩어져 버리니, 별 이익이 없지

38) 只野真葛, 『独考』, p.269.

39) 只野真葛, 『独考』, p.295.

40) 풍우란저, 박성규역, 『중국철학사』하, 까치, 2003, p.455.

41) 只野真葛, 『独考』, p.295.

않는가? 설익은 학자의 경우라면 여기저기 잘못 생각한 곳이 많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지혜는 나오지 않고 따지는 것만 많다. 이것이 학자들의 전체 모습이다.<sup>42)</sup>

북송시대의 신유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 1130-1200)에 따르면, 온갖 리가 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있는 것이다. 각각의 리가 없으면 각각의 사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된다.<sup>43)</sup>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안에 그 일의 리가 존재하며, 또 어떤 물질이 생기면 곧 그 안에 그 물질의 리가 존재한다. 자연의 사물에만 각각 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물, 즉 계단이나 벽돌 등에도 각각의 리가 있다. 한편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氣)다. 리는 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리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리는 구체적인 사물 안에서 존재한다. 기가 응집하지 않으면 리는 붙어있을 대상이 없으니 리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리와 기는 항상 같이 존재하며, 모든 인간과 사물도 리와 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기론을 염두에 두고 유학자들은 인간과 사회, 정치와 도덕, 수양의 문제를 논한다. 마쿠즈는 이러한 이기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유학자들이 낮과 밤의 수를 무시하고 천지간의 박자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 3.3 인의예지

마쿠즈는 또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유교 덕목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하였다. 유교에서 ‘인의예지’는 리로 부터 출발한 도덕적인 원리다. 앞서 소개한 리와 기는 인간에게는 적용되는데, 리는 인간 안에서 성(性)이라고 하는 리의 총화로 존재한다. 모든 리가 합해져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성(性)안에 인의예지의 도덕적인 원리가 들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인의예지라는 성은 리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다. 그것의 존재를 추측하게 해주는 것이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고 하는 정(情)이다. 측은지심을 통해서 인(仁)이라고 하는 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오지심을 통해서 의(義)라고 하는 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양지심을 통해서 예(禮)라고 하는 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시비지심을 통해서 지(智)라고 하는 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44)</sup>

그런데 마쿠즈는 이러한 ‘인의예지’를 비판하고, 자기 나름의 ‘인의예지’를 정의하였다.

42) 只野真葛, 『独考』, p.295.

43) 주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풍우란저, 박성규역, 『중국철학사』하, p.534, 542 참조.

44) 풍우란저, 박성규역, 『중국철학사』하, pp.555-556 참조.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도 사람 마음의 자세에 따라 중국의 문장가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원문주: 이 부분은 모두 서문이다. 단지 ‘의(義)’의 안과 밖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무의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인(仁)’은 (원문주: 마쿠즈 처럼) 자신의 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업보를 남기고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禮)’도 저절로 존재하는 마음의 자세다. 새나 짐승조차도 그 단초(端)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지(智)’란 사물을 잘 아는 것이지 않을까? 단지 ‘의(義)’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하는 마음의 자세는 가슴에 모여 강하게 드러나는, 세간에서 말하는 소위 ‘성질’이다. 그러한 것을 좋은 일에 표현하는 것을 ‘의(義)’라고 하고, 나쁜 일에 표현하는 것을 ‘폭(暴)’이라고 한다. 글자로는 선악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몸 안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인의예지를 이렇게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인(仁)은 마쿠즈 처럼 자신의 몸을 버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업보를 남기려고 생각하는 것, 예(禮)란 저절로 존재하는 마음의 형태로, 새나 짐승도 그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 지(智)란 사물을 잘 아는 것, 의(義)란 가슴에 모아서 강하게 대항하는 것으로 소위 세속에서 말하는 화를 잘 내는 것이다.

마쿠즈가 이처럼 인의예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동기와 이유에서 였다. “문자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몸속은 알 수 없다. 마쿠즈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수행을 시작한 이래, 스스로 마음 자세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마쿠즈는 특히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럼 설명해보자. 같은 마음에 선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혼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맹자의 책에서 ‘의(義)는 내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라고 논의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두 가지 개념에 미혹된 것이다. 착한 일에 사용하여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것이 ‘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쁜 쪽으로 사용한 사람은 사실 자기 멋 대로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력하여 착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sup>45)</sup>

의에 대한 맹자의 설명까지 비판하면서, 의를 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쿠즈는 이렇듯이 유학 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비판하는 자세를 보였다.

### 3.4 공자 성당

마쿠즈는 유교 사원인 ‘공자 성당(聖堂, 유시마성당을 말함)’의 기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유교사원을 나라의 낭비를 걱정하는 학자들의 집회소로 바꾸어 서로 의

45) 只野真葛, 『独考』, p.292.

견을 교환하고, 성당의 문 앞에 투서 상자를 두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넓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고도 주장하였다.

세상을 이겨낸 사람의 마음씨는 사물의 낭비를 싫어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불법을 정진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오로지 낭비를 없애기 위한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경우나 낭비를 싫어하는 속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는 풍습은 나중에 없어졌다든지 공자성인은 그것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지금 성당의 이름으로 위압적인 건물을 짓고, 거기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성인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본래 모습의 공자성인과 그 명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중앙에서 시작하여 각 지방 곳곳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모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일 것이다.<sup>46)</sup>

우선 마쿠즈는 이렇게 공자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유교사원을 짓는 것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일이 공자의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금(金)을 다투는 난세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성당을 짓는 행위는 금전과 보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는 일만 되어 나라에 이득이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이후 이 성당에서 나라의 낭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천지를 꿰뚫는 엄숙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곳으로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각 지방에 세우는 성당에서도 그것을 배워 사심을 버리고 하루 밤낮의 수를 기본으로 하여 천지간의 박자에 따라 일본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서로 생각해내면서 이것을 모아 좋고 나쁨을 정해, 배우들처럼 만대(万代)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업적을 이루어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성인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당 문 밖에도 귀천을 가리지 말고 생각한 것을 바치는 상자를 놓아두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서로 비교해서 본다면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도 많을 것이다.<sup>47)</sup>

이왕에 짓는 성당을 잘 발전시켜서 일본의 이익이 되는 일을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삼으면 어떻겠는가하고 제안한다. 그리고 성당 문 밖에 투고함을 세워두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장소로 삼자고 한다.

46) 只野真葛, 『独考』, p.293.

47) 只野真葛, 『独考』, p.293.

## 4. 마쿠즈의 유교적 사유방식

### 4.1 완전부정이 아닌 대안의 제시

마쿠즈의 유교 비판을 읽어 보면, 그것이 비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판의 끝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비판과 함께 또 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따뜻한 비판,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여길 만한 부분이 많다.

먼저 앞 장에서 살펴본 ‘성인의 도’(3.1절)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마쿠즈는 ‘성인의 도’가 현실 생활에 별로 쓸모없으며 가끔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비판을 하였으나, 그 도가 ‘공적인 일에만 사용된다면 도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거나 ‘공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수레에 신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당장 급할 때 이 용하기 위해서 그 대강을 분명히 해두고’라는 등등의 언급을 하고 있다.<sup>48)</sup> 사적인 일상 생활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공적인 일에서는 그 효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잘 단속한다면 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쁜 놈들이 멋대로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한다.<sup>49)</sup> 이러한 언급은 ‘성인의 가르침’을 닦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들을 닦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나쁜 사람들의 악한 행동까지 대응해줄 수 있는 성인의 가르침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마쿠즈는 자신이 제시한 ‘천지의 박자’사상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낮과 밤의 수 및 천지의 박자에 합치되게 살 수 있다면 일생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인의예지에 대한 비판(3.3절)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유학자들이 제시한 인의예지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자신이 새롭게 정의한 인의예지의 뜻을 제시하였다.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것들이 필요 없는 덕목이라고 보지 않고, 그 덕목의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고쳐 제시한 것이다. 인의예지에 대한 비판이 비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

‘공자 성당’(3.4절)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사업이 금전과 보물을 낭비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공자 성당을 이용하여 ‘천지를 꿰뚫는 엄숙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곳’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그곳에 사람을 모으고, 투고함을 세워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서로 비교해보면 국가를 위해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국적으로 세워지는 공자상과 공자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소로서 공자 성당이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유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48) 只野真葛, 『独考』, p.290.

49) 只野真葛, 『独考』, p.268.

## 4.2 유교 도덕적인 삶의 추구

마쿠즈가 유교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유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남동생이 사망하고, 그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을 세워서 『독고』를 집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우리 형제자매는 성인의 도를 지키려다, 일곱 형제 모두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해를 거듭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써두는 것이다.<sup>50)</sup>

마쿠즈는 자기 집안의 형제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남동생 모토스케(工藤源四郎)는 일곱 남매 중에 네 번째로 유일한 남동생이었다. 장녀인 마쿠즈는 항상 그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 가문을 잘 이어갈 것 기대하고 있었으나 3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구도 겐지로(工藤源四郎), 실지 이름은 모토스케라고 한다. 뜻이 청아하고 건강하였으며, 중국 성인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사람이었다.<sup>51)</sup>

동생은 의사였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의 간호에 몰두하다 사망하였다. 마쿠즈가 에도에서 멀리 떨어져 다다노(只野)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남동생의 힘이 되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신랑 다다노 이가(只野伊賀) 집안은 센다이 번에서 비교적 격이 높은 무사집안이었다. 마쿠즈의 결혼은 이렇게 자기 가문을 위한 희생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마다하지 않은 효심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였다.<sup>52)</sup>

마쿠즈가 추구한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는 『독고』 전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독고』는 상권, 중권, 하권의 3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전해지는 『독고』는 원본이 아니라 초록 본으로, 원본은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다고 한다.<sup>53)</sup>

상권을 보면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sup>54)</sup> 1) 첫 번째는 ‘풀지 못한 의문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로 ①달의 크기가 변하는 이유, ②여자 배우의 행동, 그리고 ③첩이

50) 只野真葛, 『独考』, p.268.

51) 只野真葛, 『真葛がはら』(鈴木米子編, 『只野真葛集』) p.500

52) 高橋恵, 「只野真葛の思想」, pp.45-46.

53) 鈴木よね子, 「『独考』 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p.72.

54) 글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鈴木よね子, 「『独考』 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73-75에 소개된 목차를 참조한다.

집을 시끄럽게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① 여자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것, ②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 ③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성인의 도란’, 4) ‘마음이 어지러운 세상’과 5) ‘금전이 있는 곳’ 등이다.

마쿠즈는 본문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많으나 사람들이 잘 따지는 일들은 그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논의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나로서는 지극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두세 가지 있었다. 몇 년이 지난 뒤, 드디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sup>55)</sup>

이러한 말을 잘 살펴보면 마쿠즈는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생각을 거듭하여 결국 나름대로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해답이 바로 『독고』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 상권은 『독고』의 서론 부분으로 몇 가지 의문과 자신의 소망,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낸 해답의 일부분을 싣고 있다. 특히 ‘마음이 어지러운 세상’과 ‘금전이 있는 곳’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마쿠즈가 사회와 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의 ‘의문’을 보면 인간의 행동과 자연의 운행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권 전체에 적힌 내용을 보면 마치 유학자의 문제관심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면 북송의 유학자 주렴계의 「태극도설」을 읽어 보면, 먼저 태극운동에 대해서 논하고 음양 및 오행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원리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만물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만물가운데 사람을 이야기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선악, 만사를 지적하고, 그중의 모범인 성인의 이야기를 하고 끝낸다.

마쿠즈의 관심이 달에서 시작한 것은(1-①) 바꿔 말하면 우주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배우에 대한 관심은,(1-②) 자신과 달리 남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점을 들어 인간의 본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첩은 왜 집안을 혼란하게 만들까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은,(1-③)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첩과 관련하여 마쿠즈는 이러한 분석을 한다.

무사(武士) 집안에서 자란 여성을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 상인 집안 출신의 첩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어떠한 남자라도 멋지게 내던질 수 있는 솜씨를 가진 여자라면 나는 첩이 되고 싶다고 한다.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주인님은 순수하신 마음에서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하

55) 只野真葛, 『独考』, p.261.

기 때문에 언제나 내동댕이쳐지거나 짓밟혀 창피한 꼴을 당하시게 된다. 불러들인 그날부터 시작하여 때를 보아서 주인님을 가지고 공기놀이하는 돌맹이로 삼으려고 노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 거금을 주어 불러들인 것이야 말로 지나친 낭비인 것이다. 첩이된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주인이 다스리는 영토 전체를 기울게 할 정도로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여자와 소인(小人)의 마음이다.<sup>56)</sup>

공자가 언급한 ‘여자와 소인’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본 것이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려운데, 가까이 하면 공손치 않고, 멀리 하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sup>57)</sup> 마쿠즈는 첩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사(귀족)와 상인(평민)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간과 가정, 사회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본 것이다.

마쿠즈가 하고 싶은 일 3가지인 ①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것, ②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 ③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경지와 성인의 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뒤의 3) ‘성인의 도란’, 4) ‘마음이 어지러운 세상’과 5) ‘금전이 있는 곳’에 대한 글도, 성인 또는 인간 혹은 사회에 관한 언급으로 이 역시 유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독고』의 ‘중권’은 자기 마음이 떠올라 땅에서 벗어난 일, 여성들의 위대함, 일본, 일본인, 유러시아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하권’은 ‘여성의 가르침’, ‘금전의 행방’, ‘물건 값이 불안정한 이유’, ‘마음의 자세’, ‘물건의 낭비를 싫어함’, ‘말을 처음배울 때 읽어 주어야 할 문장의 대강’, ‘여자와 소인’, ‘속셈을 해야 할 큰 수’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여자와 소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인 집안의 여자는 군자(君子)를 원수처럼 생각한다. 몸종이나 짐꾼 같은 소인들은 고용된 대가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고용한 주인을 비웃는 것이 무척 심하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는 모른다”고 하였다.(바킨의 주: 이것은 공자가 한말을 나타낸다.) 주인의 허락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도, 주인은 이 하인 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때리기에는 힘이 없고 꾸짖기에는 별 이득이 없다. 하인은 도망가는 길,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어 잘도 달아난다. 봉급을 주인으로 삼고 고용한 주인을 돈주머니로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정면으로 내걸고 일하는 것이다.<sup>58)</sup> 이러한 인정머리 없는 것들을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오직 사람들의 면목만을 생각할 뿐이다. 이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하인을 데리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sup>59)</sup>

56) 只野真葛, 『独考』, p.267.

57) 『논어』(양화편) : 子曰, 唯女子與小人, 爲難養也. 近之則不孫, 遠之則怨.

58) 只野真葛, 『独考』, p.298.

무사(귀족)집안의 딸인 자신의 입장에서 상인(町民, 평민)집안의 여자, 혹은 몸종이나 하인들의 성품을 언급한 것이다. 주인(영주)인 무사를 ‘군자’로 지칭한 것을 보면, 그리고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유교적인 발언을 살펴보면, 마쿠즈는 매우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그러한 교육을 받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동시에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일이나 『독고』에서 서술된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는 매우 유교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5. 맺음말

마쿠즈가 살았던 에도 말기의 사상적인 분위기는 주자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했다. 중국 사상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던 국학, 주자학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양명학, 송대·한대의 유학을 극복하여 좀 더 앞선 선진 시대의 문헌을 중시했던 고문사학(古文辭學) 모두 마쿠즈가 살았던 시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다노 마쿠즈는 그의 『독고』에서 여러 가지 유교 비판을 시도 하였지만, 유교를 완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했던 것을 아니었다. 그의 비판에는 오히려 유교 사상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유교의 도(성인의 도)에 대한 비판, ‘인의예지’ 및 공자 성당 등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비판 가운데서도 마쿠즈는 자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인의예지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고, 유교의 우주론(이기론)에 대신해서 ‘천지간의 박자’와 ‘낮과 밤의 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당시에 ‘공자 성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물자 낭비라고 비판하였는데, 성당 건설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자성당을 나라 언론의 중심 기관으로 만들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마쿠즈의 유교에 대한 언급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의 가르침을 자기사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마쿠즈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유교사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유용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유학적인 틀 안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9) 只野真葛, 『独考』, pp.298-299.

## 【参考文献】

- 鈴木よね子校訂(1994)『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 高橋恵(2002.3)「只野真葛の思想」, 『年報日本思想史』創刊号, pp.45-46 等
- 宮沢民子(1975.8)「幕藩制解体期における一女性の社会批判—只野真葛の「独考」を中心に」, 『歴史学研究』423, p.17
- 今井伸子(2003.3)「只野真葛考」, 『鶴見日本文学』7
- 鈴木よね子(1987.3)「「独考」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都大論究』通号24, pp.73-75 等
- 鈴木よね子(1995.10)「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日本文学』pp.44-10, p.43 等
- 鈴木よね子(1987.1)「反真葛論—「独考」1件をめぐる」, 『日本文学』36-1, p.26.
- 鈴木よね子(1986.3)「只野真葛「奥州ばなし」—異界発見の一過程」, 『都大論究』23
- 門玲子 等(2001)『只野真葛あての妹萩尼からの書簡(翻刻)』, 『江戸期おんな考』12
- 門玲子(2001.7)「江戸時代の女流思想家 只野真葛」, 藤原書店, 『環』6
- 門玲子(1996)「只野真葛その文学と思想—孤独な挑戦者」, 『江戸期おんな考』7, 桂文庫
- 門玲子(2000)「只野真葛の夫伊賀あて書簡」, 『江戸期おんな考』11
- 別所興一(2002.3)「只野真葛の貨幣経済認識と儒教批判」, 『自然と実学』2, pp.1-2 等
- 本田和子(1992)「父になり得ぬ娘の嘆き」, 『江戸の娘がたり』, 朝日新聞社
- 上田秋成(1914)「磯つたひ」, 婦人文庫刊行会, 『婦人文庫 第4回 文集』
- 須永朝彦訳(1999)「影の病: 「奥州波奈志」より」, 東雅夫編, 『書物の王国』, 国書刊行会
- 前田勉(2001)「赤蝦夷風説考」, 『日本思想史辞典』, ぺりかん社, p.3
- 前田勉(2004.3)「只野真葛の思想—国学と蘭学との交錯」, 『日本文化論叢』(12)
- 中山栄子著(1936)『只野真葛』, 丸善株式会社, p.85 等
- 中山栄子校注(1984)『むかしばなし: 天明前後の江戸の思い出』, 平凡社, 東洋文庫433
- 鈴木よね子校訂(1994)『只野真葛集』, p.261, 282 等
- 풍우란저 박성규역(2003)『중국철학사』하, 까치, p.455 等
- Janet R. Goodwin, Bettina Gramlich-Oka, Elizabeth A. Leicester, Yuki Terazawa, Anne Walthall(2001)“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1), 56:2
- Bettina Gramlich-Oka(2001)“Tadano Makuzu and her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
- Bettina Gramlich-Oka, 2004.6, “Kirishitan Kô by Tadano Makuzu: a late Tokugawa woman's warnings”, *Bulletin of Portuguese-Japanese Studies*, Vol8, Universidade Nova de Lisboa.

## 要 旨

只野真葛は『独考』の中で、儒教に対して様々な批判を行っている。ところが、彼女の批判は、儒教を完全に否定する批判ではなく、むしろ儒教に対して期待感を促すような批判であった。本論では、儒教の道、すなわち「聖人の道」に対する真葛の批判、「仁義禮智」思想に対する批判などを探ってみた。筆者はそれらの批判の中で、真葛は自分なりの対案を提示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彼女は仁義禮智の教えについて、新しい解釈を試みていたり、あるいは儒教の宇宙論、すなわち理気論に代わって「天地間の拍子」や「昼夜の数」という新しい思想を提示したりしていた。

真葛は、また当時の「孔子聖堂」の建設に対して、物資浪費として批判していたが、聖堂建設そのものを完全に否定していたわけではなく、むしろ孔子聖堂を国の言論の中心機関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せよと主張していた。

このようなことを持って判断すれば、真葛の儒教に関する言及は、「批判」であるというよりは、むしろ儒教の教えを自己思想の出発点として捉え、新しい内容と加え、現実の世界に対応しようとした意図が多かったと言えよう。儒教に対して批判を行いながら、真葛は、自分自身と自分の家族が大きく依存してきた儒教思想に対し、最後までその有効性を疑っていなかった。要するに、彼女の思想は、あくまで儒学的な思想の枠組みの中で形成され、発展していた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只野真葛、独考、儒教、儒学、江戸時代、知識人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